

- 주요 뉴스: 미국 2/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대비 상향 양호한 개인소비 등이 반영
 -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경미. 노동시장은 양호
 - EU, 미국産 수입품 관세 철폐 법안 발표. 프랑스 재무장관은 재정불안 우려 일축
 - ECB,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 이견 피력. 유로화 강제도 논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상치 상회한 2/4분기 GDP, 9월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중심 주요 기술주의 상승 견인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 관련주 약세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압박에 따른 연준 독립성 논란 지속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7년물 압찰 수요,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3.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5.5원, 0.15% 하락). 한국 CDS 약보합

		8/28일	8/27일	전일대비			8/28일	8/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01.9	6,481.4	+0.32%	국채 금리 10y	미국	4.20%	4.23%	-3bp
	유럽	553.67	554.76	-0.20%		독일	2.70%	2.70%	-1bp
	중국	3,843.6	3,800.4	+1.14%		영국	4.70%	4.74%	-4bp
	일본	42,829	42,520	+0.73%	CDS 5y	한국	20bp	20bp	-0bp
	한국	3,196.3	3,187.2	+0.29%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7.89	98.23	-0.35%	위험 지표	EMBI+	-	355	-
	유로화	1.1683	1.1639	+0.38%		VIX	14.43	14.85	-2.83%
	엔화	146.93	147.42	+0.33%		WTI유	64.60	64.15	+0.70%
	위안화	7.1307	7.1517	+0.29%	원자재	구리	446.4	442.0	+0.98%
	원화	1,387.6	1,396.3	+0.63%		금	3,417.1	3,397.4	+0.5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대비 상향. 양호한 개인소비 등이 반영

- 2/4분기 GDP(수정치, 전기비연율)가 3.3% 증가하여 속보치(3.0%) 대비 상향. 이는 시장 예상치(3.1%)도 상회한 것으로 개인소비(1.4%→1.6%) 및 설비투자(1.9%→5.7%) 등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양호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기간 관세 여파로 인한 수입 급감이 GDP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FWBONDS). 또한 시장에서는 향후 고용 둔화 및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Citi)
- 한편, 2/4분기 PCE 물가지수는 2.0% 올랐고, 근원 PCE 물가지수는 2.5%를 기록. 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의미
-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9만건을 기록, 전주(23.4만건) 대비 0.5만건 감소. 연속 청구건수 역시 195.4만건으로 전주(196.1만건) 대비 감소. 이번 결과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고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됨을 시사. 전문가들은 관세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7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0.4% 줄어 예상치(0.1%) 하회. 이는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둔화 등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매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판매 증가의 신호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경미. 노동시장은 양호

- 연준 이사로 지명된 마이런 위원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지는 못할 것이며,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해도 이는 부가세와 같이 일회성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 최근 노동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
- 한편 연준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해임과 관련하여 불복 소송을 제기. 이는 본질적으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분쟁이 될 전망

■ Nvidia, 투자기관의 목표 주가 상향 확산. AI 관련 거품 우려도 다소 완화

- 블룸버그에 따르면, Nvidia의 2/4분기 실적발표 이후 10개의 투자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 평균 목표주가는 3% 올라 202.6달러이며, 이는 현 주가(180.1달러) 대비 12% 높은 수준. 시장에서는 Nvidia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며, 이에 최근 불거진 AI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되었다고 진단

■ EU, 미국산 수입품 관세 철폐 법안 발표. 프랑스 재무장관은 재정불안 우려 일축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2개 법안을 발표.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이는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를 15%(현행 27.5%)로 낮추기 위한 선결 조건
- 한편 프랑스의 롬바르 재무장관은 세수가 예상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5.4%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금융위기가 나타날 위험도 없다고 강조

■ ECB,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 이견 피력. 유로화 강세도 논의

- 7월 통화정책회의의 요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은 상이. 일부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가 제한적이며,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 다른 일부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 제시. 한편, 위원들은 최근의 유로화 강세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

■ 일본은행 나카가와 위원, 향후 금리 결정은 각 회의의 경제 판단을 고려할 방침

- 나카가와 위원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근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향후 금리는 매번 회의에서의 경제 판단에 기반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또한 물가는 '27년에 목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PCE 물가 및 무역수지, 7월 개인소득 및 지출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 독일 8월 소비자물가 및 7월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국채시장, 주요국의 장기 국채 발행 추진 등으로 높은 변동성 지속될 소지 - Reuters

(For bruised bond markets, turbulence persists as debt sales ramp up again)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9월 장기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3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일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8월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각각 15bp, 27bp 상승. 이와 같은 상황은 해당 국가의 재정비용 증가 위험을 초래
- 이는 주요국에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연준의 독립성 우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 일본의 금리경로 전망 등에 기인. 한편,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24년: 3.3%→25년: 3%) 등을 고려한다면, 주요국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연준의 독립성 강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통화정책 체계 구축 등이 요구 - 블룸버그

(How the Federal Reserve can bolster its defenses: Bill Dudley)

- 연준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금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 잭슨홀 회의에서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개편안도 공개. 이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했던 기존 전략을 되돌려 대칭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로 회귀. 또한 고용과 물가 목표를 균형 있게 재정의. 아울러 중립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제로금리 하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
-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미흡. 연준은 양적완화 활용의 비용-편익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전망 전달 방식도 개선할 필요. 정치적 압력에 위축되지 않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체계 구축도 독립성 강화에 중요

■ 미국 주택시장, 구매력 약화 고려 시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 - 블룸버그

(Not Even Buffett's Confidence Buy Can Spur a Housing Recovery)

-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개조 업체의 실적 개선, 워렌 버핏의 주택건설 업체 지분 확보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제기. 그러나 구매력 약화와 재고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은 기대난
- 낙관적 전망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이 전제될 필요. 또한 금년 6월 이후 모기지 금리의 0.5%p 하락은 구매력의 4% 향상을 의미하지만 팬데믹 여파를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 또한 작년 금리인하가 모기지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

■ **일본 장기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 '가치 함정'에 빠진 징후가 뚜렷 - 블룸버그**

(Japan's 'Value Trap' Bond Market Chews Up Foreign Investors)

- 작년 말 일본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 가격이 급락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장기 국채를 매수(1~7월, 9.3조엔). 하지만, 투자자들은 다음 이유로 '가치 함정(Value Trap: 매력적이지만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산 매수)'에 빠졌을 가능성. 첫째,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인한 채권시장 혼란 확대
- 둘째,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제어 중단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정성 증폭. 셋째,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자세. 넷째, 일본은행 채권 매입 규모의 점진적 축소. 다섯째, 연립여당의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재정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증가 전망. 여섯째, 연기금·보험사·외국투자자의 매수세 둔화

■ **미국 트럼프와 유럽 정상 의 라우 전쟁 이전, 유럽 역사 인식 차이에 기인 - Financial Times**

(Trump is oblivious to Europe's history)

■ **미국의 對인도 징벌적 관세 부과, 중국이 인도와의 협력 강화로 혜택 - Financial Times**

(China gains from Trump's alienation of India)

■ **Nvidia의 높은 기업 가치, 미래 전망에 기반을 두어 본질적으로 불확실 - Financial Times**

(Nvidia's exuberant valuation is a tomorrow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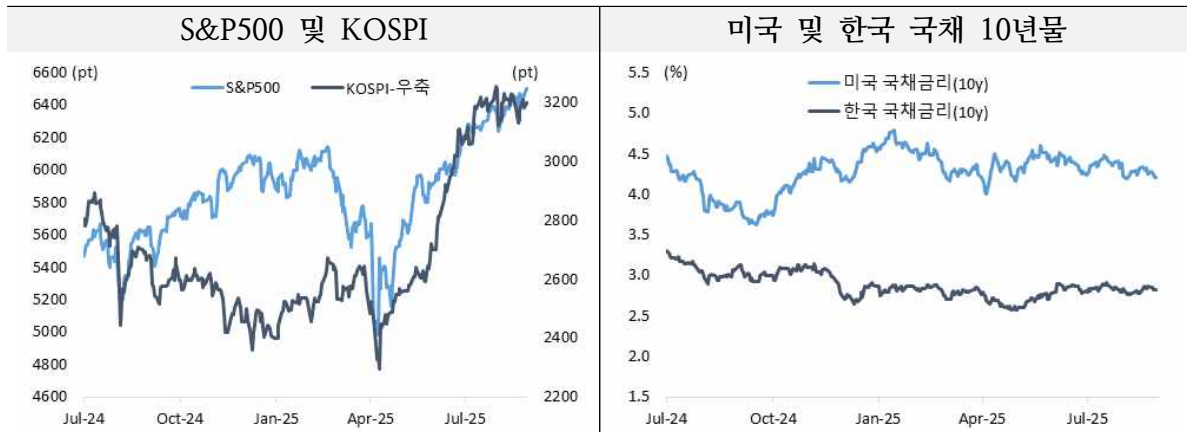
■ **유럽의 다수 정부, 재정 등 국가별 상이한 문제로 국정 운영에 난항 - 블룸버그**

(Much of Europe Is Losing the Ability to Govern)

■ **인도 卅정부, 모디 총리 감세와 미국 트럼프 관세의 이중 위협에 직면 - 블룸버그**

(India's States Face Dual Threat From Trump's Tariffs, Modi's Tax Cut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